

불황의 사회심리적 영향

이 훈 구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경제 재난이 과연 사회병리적 현상 예컨대 자살, 폭력, 범죄, 가정파괴, 그리고 정신과적 문제를 일으키는가 하는 문제를 주로 외국의 논문을 중심으로 규명하였다. 거시적 연구를 종합한 결과 미국의 1930년대 공황 및 1980년대 구라파의 공황은 경제 재난이 위와 같은 사회병리적 현상을 초래함이 밝혀졌다.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경제적 재난이 사회 병리적 현상을 초래하는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심리학적 미시적 연구를 종합해 본 결과 실업자는 우울증, 무기력감, 불안, 분노, 자존심의 저하를 경험했음이 밝혀졌다. 즉 경제 재난은 단순히 경제적인 곤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를 초래했다.

우리는 6·25 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에 처해 있다. 1998년 4월 28일자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실업자가 이미 200만명에 육박했다. 실업자의 대부분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데 그에게 달린 식솔의 숫자를 합치면 약 600만명 내지 800만명의 실직 가족원이 발생하며 이들은 가정의 실직에 따른 여러 가지 심리적 경제적 고난을 겪게 된다.

물론 경제적 재난 특히 실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는 실직자가 재취업함으로써 완전 해결된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경제공황은 1-2년의 단기간에 끝나기보다는 4-5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더 크다. 만일 이러한 추측이 기정 사실화하면 대

부분의 실직자들은 오랜 기간동안 재취업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고통은 막대할 것이다. 실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정부 및 산업 각계의 노력은 절실하다. 그러나 동시에 실직가정이 갖는 문제점을 미리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도 게을리 할 수 없는데 만일 이를 방치하면 국민의 약 1/5 가량이 경제적 공황과 정신적 공황을 동시에 겪게 된다. 이 연구는 장기적 불황이 미치는 사회심리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한국은 지난 30년간 불황을 겪어보지 않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해 왔다. 따라서 우리는 불황이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가져오는가를 연구해 볼 기회가 없었다. 반대로 미국은 1930년대에 경제 대공황을 겪었고 구라파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심한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들 외

* 이 연구는 1997년도 한국 학술진흥재단 연구지원에 의해서 수행된 것임.

국에서는 불황에 대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외국은 우리와는 여러 가지면 예컨대 경제, 문화, 그리고 일반인의 심리적 특성까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문화가 다르다고 해도 인간은 서로 공통된 특징을 많이 공유하기 때문에 외국의 연구결과를 간단하게 조감한 다음 한국적 상황에서 위기 대처방안을 탐색해 보기로 한다.

경제 재난의 사회 심리적 영향

거시적 연구 결과

경제 변화가 인간의 심리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Durkheim(Dooley와 Catalano, 1988년 논문에서 재인용함)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는 경제적 불황만이 아니라 총체적 경제 변화는 한 사회의 응집성을 파괴하고 이것은 다시 무규범(anomie)적인 혼란된 사회를 유발하여 자살율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의 연구는 집합적 경제 지표와 역시 집합적 정신건강 측정치 즉 자살율과의 관계를 살핀 것인데 Dooley와 Catalano (1980)는 193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집합적 연구 이되 시계열(time-series)연구를 해서 경제적 변화(특히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와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자살을 포함)간의 관계를 살피 본 연구를 종합하고 그 결과를 정리해 보았다. 모두 15개의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이 중 14개의 연구가 실업과 정신적 장애간(정신병 입원을 또는 자살율)에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고했다(표 1 참조). 표 1의 오른쪽 끝에 「관계」란을 보면, 하나 즉 Pierce(1967)를 제외하면 모두 U관계, 즉 경제적 불황이 행동 장애와 긍정적 관계를 보였다.

Pierce(1967)가 1919년부터 1940년까지 연간 증권가격의 절대적 변화와 자살률간의 상관을 분석

한 결과(경제 변화와 1년후의 자살율) 그 상관계수가 .74로 높은 상관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증권가격의 하락률과 자살율간의 관계만을 살폈더니 그 상관계수는 .49로 떨어지고 두 관계가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Brenner(1973)도 일부 자료에서는 의외의 결과를 얻었는데 1914년부터 1967년까지의 경제지표와 뉴욕주의 국립·사립 정신병원의 입원률간의 상관관계를 살피 본 결과 전체 집단상에서는 호황인 경우에는 정신과 입원률이 떨어지는 결과를 얻었지만 하위집단에 따라서는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서 오히려 경제적 호황은 국민학교 이하의 학력자(남녀 모두)와 여성 고교졸업자의 정신과 입원률의 증가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많은 연구가 경제적 불황이 정신과적 문제와 깊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혔지만 Pierce(1967)와 Brenner(1973)의 연구결과는 Durkheim 이 말한 경제의 자체적인 변화(즉 긍정적이든 혹은 부정적이든)가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음을 암시한다. 특히 Brenner의 연구 결과는 경제 불황 및 호황이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했다. 즉 그의 분석에서 경제적 호황은 하류층과 중하류층의 정신과 입원을 증가시켰는 바 이것이 호황에 따른 중하류층의 정신과적 문제를 더 높여 준 것인지 아니면 이들은 경제 호황 때문에 정신과에 입원할 경제적 여유가 생긴 것이기 때문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앞에서 많은 연구들이 경제적 불황이 정신과적 문제를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를 얻었으므로 호황이 중하류층의 정신과적 문제를 더 높여주기 보다는 이 집단이 경제 호황으로 정신과에 입원할 경제적 여유가 생긴 탓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경제적 변화는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 병리현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Hovland와 Sears (1940)는 미국 남부의 14개 주의 목화 값의 하락

표 1. 경제변화(집합적)와 행동장애(정신과 입원율 또는 자살률)간의 관계

연 구	장 소	기 간	경제측정치	행동측정치	관 계
Barling & Handal (인쇄중)	미국 샌트루이스	월간, 1970-1979	수도권 실업률	1. 입원 환자 2. 통원 환자	1. U 2. U
Brenner (1973)	미국 뉴욕 주	년간, 1914-1967	제조업 고용 지표	정신병원 첫 입원	U (모든 집단)
Brenner (1976)	미국	1. 년간, 1940-1973 2. 년간, 1940-1971	일인당 소득 · 실업률, 인플레이션률	1. 자살률 2. 정신병원 첫 입원	1. U 2. U (남자), U, D (여자)
Catalano & Dooley (1979)	미국 캔사스	월간, 1971 10월 -1973 1월	1. 수도권과 지방 실업률 2. 수도권 병합과 분리	1. 우울증 2. 생애변화 사건	1. U 2. A
Catalano & Dooley (1979)	미국 캔사스	월간, 1971 10월 -1973 1월	수도권 실업률	정신병원 입원	U (모든 집단)
Dublin & Bunzel (1933)	1. 미국 2. 미국 매사추세츠 3. 미국 10개 동부 주	1. 년간, 1911-1931 2. 년간, 1910-1931 3. 1910-1931 (a) 년간, (b) 월간	일반 사업지수	자살률	1. U 2. U 3. (a) U (b) U
Hammermesh & Soss (1974)	미국	년간, 1947-1967	실업률과 연령, 수입 예측인자	남자 자살률	U
Henry & Short (1954)	미국	년간, 1920-1947	산업 활동지수	자살률	U
Marshall & Funch (1979)	미국 뉴욕 주	년간, 1916-1955	제조업 실업률	정신병원 입원	U (35-64세) D (일부 사람)
Ogburn & Thomas (1922)	미국	년간, 1900-1920	9가지 사업 지수의 평균	100개 도시의 자살률	U
Pierce (1967)	미국	년간, 1919-1940	주식값의 절대 변화	연령 교정한 백인남자 자살률	A
Sclar & Hoffman	미국 매사추세츠	1. 월간, 1950-1975 2. 월간, 1958-1975	실업률	1. 입원 환자 2. 통원 환자	1. D 2. U
Swinscow (1951)	미국	년간, 1923-1947	실업률	자살률	U
Thomas (1927)	영국	년간, 1853-1913	사업 지수	자살률	U
Vigderhous & Fishman (1978)	미국	년간, 1920-1964	실업률의 차이	연령 표준화한 백인남자 자살률	U

주. U = 경제 불황이 행동장애와 긍정적 관계를 보임, D = 경제호황이 행동장애와 긍정적 관계를 보임,
A = 절대적 경제 변화가 행동장애와 긍정적 관계를 보임

은 백인의 흑인에 대한 폭력을 크게 증가시켰음을 밝혔다. 그들은 49년간에 걸친 방대한 자료를 분석했는데 폭력사건수와 경제하락과의 상관관계는 -.72부터 -.63에 이르는 높은 상관이었다. 더 최근의 연구로는 1984년에 미국 국회의 경제 분과에서 발표한 1973 - 1974년의 급격한 실업률의 증가가 사회에 미친 결과인데 이 보고서에서는 실업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전체 사망률의 2.3% 증가, 자살율 1% 증가, 정신병원 입원률의 6% 증가 그리고 전체 범죄의 6%의 증가가 있었다고 결론지었다.(Dooley & Catalano, 1988)

그러나 집합적 경제지표 - 집합적 정신건강행동의 연구는 한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즉 이러한 거시적 연구는 원인과 결과(즉 실적이 정신장애를 초래하는지 또는 그 반대의 경우는 없는지)를 밝히는데 미흡하다.

Dooley와 Catalano(1980)는 거시적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서 거시적 연구의 문제점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거시적 연구는 경제적 변화와 정신장애간의 관계를 분석할 때 그 시간 경과를 너무 길게 잡았다. 한 연구를 제외하면 14개의 거시적 연구는 1년이상의 경과기간을 두었다. 실직은 당사자에게 있어서 충격적이므로 그것이 급성의 병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직 후 1 - 3개월 이내에 그 효과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어떤 연구에서는 실직의 효과는 첫 1 - 3개월에 최고조에 달하고 그 후에는 정서적 장애가 다소 감소된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후에 기술할 개인적 또는 미시적 연구에서 자세히 논할 것임) 둘째로 종속변인이 너무 재난적 내용에 국한된 단점이 있다. 즉 거시적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으로 자살, 그리고 정신과 입원률을 조사했는데 실직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에 입원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심리적 또는 건강상의 장애가 발생했을 것이다.

미시적 연구결과

미시적 연구라 함은 사실 개인적 연구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인데 이것은 거시적 연구와는 달리 경제 지표나 정신건강의 지표가 조합되고 합산된 것이 아닌 개인적 경험(즉 실직 그리고 개인의 정신 및 신체건강상의 이상여부)을 다루기 때문이다.

개인적 연구는 유사실험법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거시적 연구가 갖는 많은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다. 예컨대 장기 종단적 연구,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의 설정, 피험자가 실직을 하기 전과 후의 행동변화(구체적으로 말해서 공장폐업 연구를 구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개인적 연구의 장점은 종속변인이 다양할 수 있고 매개변인을 조사할 수 있다. 실업이 개인의 정신적 장애를 일으키는데 개재하는 것은 경제적 곤란인가 아니면 부부간의 불화로 인한 가정파탄 때문인가 등이 규명될 수 있다. 또 가장의 실직은 당사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의 부인을 포함한 전 가족 구성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개인연구에서만 조사가 가능하다.

실직과 관련된 개인연구이되 종단적 연구만을 골라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일곱개의 연구 모두가 실업의 경험이 심리적 장애와 긍정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표 2에 제시된 7개의 연구 중 1개는 실직자의 자살기록과 정신과적 병력을 조사하여 정신장애를 조사했으나 나머지 6개의 연구는 피험자가 자기보고한 심리적 장애를 조사했다. 실직이 심리적 장애에 주는 영향을 완화하는 변인으로 공통적으로 조사한 요인은 사회적 지지이다. 이것은 부부간의 또는 친구 및 친척의 정서적 지원을 뜻하는데 예컨대 실직자가 주변 사람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경우 실직이 심리적 장애에 주는 효과가 크게 완화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표 2. 실업과 그에 따른 행동에 관한 종단적 연구의 요약

연구	표 집	실업여부	행동측정	완화요인	실업과 행동간의 관계
1. Cobb & Kasl (1977)	제조공장의 남성 100명 (미국)	실직과 그 후의 경험	우울증, 불안 아노미	사회적 지지 도시, 농촌 거주	긍정적 복합
2. Cohn (1978)	남녀 511명 (미국)	두 기간 면접 중의 실직	자신에 대한 불만	현저한 실업률 속에서 취업의 중요성	긍정적
3. Parnes & King (1977)	중년 2314명 (미국)	비자발적 영구 실직	무기력감		긍정적
4. Theorell, Lind & Floderus (1975)	건설 노동자 3289명 (노르웨이)	30일 또는 그 이상의 실직 또는 직장변화	자살기록, 정신과적 병력	가정생활과 경제 상태에 대한 불만	긍정적
5. Kessler, Turner & House (1988)	현재실직중: 146명 과거 실직함: 162명 안정적 고용: 184명 (미국 흑, 백인)	실직, 재고용, 무실직	정신건강 검목표, 신체적 질병에 대한 자기 평가	사회적 지지, 자아 개념, 대처유형	긍정적
6. Liem & Liem (1988)	미국인 82명의 노동자와 사무직 직원	실직(1년 추적 조사)	남편과 아내의 감정 균형척도, 가정분위기, 가정내 노동분할	사회적 지지, 부부간의 관계	긍정적
7. Iversen & Sabroe (1988)	덴마크인 1594명	실직, 비실직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 직업, 만성적 건강문제	긍정적

Cobb와 Kasl(1977)의 연구는 폐업직전에 있는 두 개의 공장의 남자 종업원의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건강을 조사했다. 그들의 연구의 특이성은 공장폐업이전, 공장폐업, 취업유예(probationary employment), 그리고 안정적 고용기간에 걸쳐서 그러한 기간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측정했다. 이들의 연구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폐업직전과 폐업 후에 근로자들이 갖는 심리적 장애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직이 심리적 장애에 미치는 효과는 사회적 지지가 있을 때 도시거주 보다는 농촌거주일 때 더 완화되었다.

Cohn(1978)은 Duncan과 Morgan(1975)이 전국적으로 조사한 5000명의 가족조사연구자료를 이용했는데 그는 두 조사기간 중 실직한 사람과 실직하지 않은 사람을 조사하였다. 그는 첫 번째 조사시기의 피험자의 “자기만족”을 통계적으로 통제한 후 실직이 “자기만족”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았는

데 부정적 영향이 있었음을 밝혔다. Cohn은 실업이 주는 부정적 영향은 만일 취업을 한 개인의 유일한 사회적 역할이 아닌 경우(예컨대 가정주부와 같이), 그리고 실업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것으로 귀인될 때(즉 피험자가 실업률이 낮은 곳보다 높은 곳에서 거주할 때)더 낮다는 재미있는 사실을 밝혀냈다.

Parnes와 King(1977)은 1967년에 최소 5년간 근무한 사람을 조사하고 그들 중 1969년과 1971년 사이에 실직한 40명의 사람과 그들과 짝을 지운(matched sample) 사람을 조사했다. 실직이전에 근로자들이 내외통제 검사(I-E 척도 ; Rotter, 1966)에서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실직한 후에 실직자의 점수는 통제집단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Theorell, Lind, Floderus(1975)는 실직이 그 다음해의 자살이나 정신적 장애와 의미있는 상관관이 있음을 밝혔다.

Kessler, Turner, 그리고 House(1988)는 실업률이 높은 미국 남부 미시간주의 주민을 층화표집하여 현재 실직중인 자(146명), 이전에 실직한 자(162명), 안정적 고용자(184명)로 나누어 조사했다. 이 연구의 단점은 종단적 연구가 아닌 동시적(concurrent) 연구이지만 비교집단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유사 실험법을 이용한 연구이다. 종속측정치로는 정신 건강검목표(SCL - 90)와 신체적 질병에 대한 자기평가가 있었다. 결과를 보면 안정적으로 고용된 집단에 비해, 현재이전 이전에 실직했던 간에 실직한 사람이 일관성있게 심리적 그리고 신체적 장애가 큼(50% 이상)을 발견했다. 실직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사회적 지지(부부, 친구, 친지가 제공하는 지원), 자아개념(자존심, 자기통제감) 그리고 재정적 재난에 대처하는 방법(지출삭감, 정부지원 프로그램 이용)에 의해 완화되었다. 실직은 특히 재정적 긴장을 통해 피험자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는데 불안에 미치는 영향의 41%, 그리고 신체화 장애의 영향에 100%를 설명했다. 실직자와 안정적 취업자는 같은 긴장을 겪더라도 그것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달랐는데 동일한 생애사건이라 하더라도 실직기간중에 그것이 발생한 경우 건강에 더 악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실직이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효과를 떨어뜨린다는 것을 암시한다.

Liem과 Liem(1988)의 연구는 실직자(82명)와 통제집단을 1년 동안 추적 조사한 종단연구이다. 통제집단은 가장이 취업중이고 가족의 크기, 가장의 연령, 직업, 자녀, 부인의 특징이 실험집단과 유사한 사람 중에서 선정했다. 종속변인으로는 부부의 정서상태(Bradburn의 감정균형척도, 1969), 심리적 증상척도, 그리고 전반적 가족분위기 등을 조사했다. 그 외에 가족내의 노동의 분담과 사회적 지지 등을 조사했다. 4회에 걸쳐 조사했는데 첫 번째는 실직 후 1-2달로서 실직에 따른 심리적 반응은 통제집단에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유의미하게 높

았다. 두 번째는 실직 후 4-5달 후로서 심리적 증상은 더 악화되었으며 특히 블루칼라 노동자들에게서 더 심하게 나타났다. 세번째는 실직 후 7달 후로서 이 때에는 정서적 반응이 더 이상 악화하지 않았다. 마지막 조사는 실직 후 1년후로서 실직 후 1년까지 재취업하지 않은 사람은 심리적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두 번째 조사전에 재취업한 사람에게서는 뚜렷한 정서적 안도감이 나타났다는데 이 사실은 이들의 단기적 정서적 장애는 실업에 의한 것이었음을 증명해 준다. 또한 재취업으로 인한 심리적 증상의 감소정도는 다른 어떤 요인(예컨대 개인적 대처)보다 더 크게 심리적 증상을 감소시켰다. 실직한 사람의 이전 직장이 보다 도전적이고 흥미로운 곳인 경우일 때 그들은 우울증을 더 많이 가졌다. 근로자가 직장 일에 만족하면 실직 후 그 타격이 더 컸는데, 이러한 결과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일에 대한 관여(commitment)가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상은 실직이 당사자에게 주는 영향이었고 실직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실직자의 이혼 및 별거율은 취업자에 비해 3.5배나 높았다. 남편의 실직은 아내의 정서상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실직에 대한 남편의 심리적 반응이 아내의 정서적 반응 중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었다. 가족의 응집성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가족내의 갈등이 심화되었는데 실직후 4달후에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실직이 평등적 가사분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가정은 단기간에서는 부정되었다. 첫번째 조사에서는 실직하면 가정에서 남편의 경제권한(금전사용의 권한)이 일시적으로 강해지나, 그후에는 통제집단과 같은 수준을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생계유지, 가사활동, 아동양육의 주책임에 대한 규범은 변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인 역할분담이 나타났다. 실직자의 다양한 사회적 친분관계, 가족의 정서적 지원, 가족분위기등은 실직한 남편의 정서적 반응을 완

화해 주었다. 부부관계는 남편의 실직스트레스를 완화해 주는 원천인 동시에 이에 반응하는 요인이다. 면접결과 실직자들은 사회기관이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움을 받는 것이 자신의 의존성과 패배감을 인식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직자를 위한 도움은 단순한 상담보다는 동료카운셀링센터(Peer Counseling Center, Schore, 1984)를 설치해서 돕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Iversen과 Sabore(1988)의 연구는 1983년 덴마크 헬싱거 조선소가 폐업한 후 갖는 심리적 문제를 조사했는데 그 조선소 근로자 1153명을 실험집단으로 그리고 다른 조선소 덴너보그에 근무하는 441명이 통제집단이 되었다. 조사기간은 폐업후 1983년 이후 1985년까지 3년간에 걸친 장기적 종단 연구로서 실직후 재취업한 집단, 계속 실직한 집단, 재취업했다가 다시 실직한 집단 그리고 실직을 경험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4집단으로 분류해서 그들의 심리적 안녕감, 신체화 장애(psychosomatic symptom), 약물남용, 기타 신체적 건강을 조사했다. 완화요인으로서는 1983년도 가정생활, 친구와의 교류 등을 조사했고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가 모두 조사되었다. 결과를 보면 계속 안정적 고용상태였던 사람의 일반 건강문제 점수(General Health Questionnaire, GHQ)가 각 시기에서 모두 낮은 점수(양호한 상태)를 얻은 반면 실직했다가 재취업한 집단이 GHQ점수가 점차 감소되어 건강상의 문제가 제거되었음이 밝혀졌다. 한편 계속 실직한 집단의 GHQ점수는 각 시기별로 모두 제일 높은 점수를 보였다. 사회적 지지, 애초의 건강이 근로자의 GHQ점수에 영향을 주었으나 직업상태(즉 실업여부)는 다른 두 완화요인과 무관하게 GHQ점수에 영향을 주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취업중인 사람이라도 직장을 잃을까봐 걱정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러한 불안을 갖지 않은 사람에 비해 GHQ점수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공

장폐업으로 실직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을 택한 사람 또는 일시적 직업이나 직업조건이 불확실한 사람에게도 건강상의 문제가 계속 잔존함을 암시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7개의 유사실험법 연구는 실직이 주는 심리적 장애를 보다 통제된 방법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에 대한 신빙성을 높혀 준 연구들이다. 일곱 개 연구 모두는 실직이 심리적 장애와 긍정적 상관에 있음을 밝히고 있고 이 관계는 개인적(사회적 지지 등) 또는 환경적 요인(재정상태)에 의해 완화될 수 있음을 밝혔다. 즉 실직의 심리적 효과는 자아개념, 실직의 원인에 대한 귀인, 실직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전략과 같은 개인적 요인과 부부관계의 원만성, 주변인물이 제공하는 정서적 지원에 의해서 완화될 수 있다.

Liker와 Elder(1983)는 실직에 따른 경제적 곤란이 부부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이때 실직 이전의 남편의 성격과 부부간의 금슬이 실직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관건이 됨을 보고했다. 즉 이들 연구에서는 실직이전에 남편의 성격이 안정적이고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룬 경우에는 남편이 실직했어도 그들의 부부관계가 파탄나지 않았음을 밝혔다. 그들은 1930년대의 대공황에 실시된 Berkeley Guidance Panel 연구를 통해 이 사실을 밝혔는데 이들 연구를 개인적 연구에서 제외시킨 연구는 부부간의 금슬 그리고 남편의 정서적 안정성을 정하는 방법이 부인을 통한 주관적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이외에 개인적 연구는 일곱 개의 연구가 더 있으나(Dooley와 Catalano, 1980을 볼 것) 이들 연구는 장기종단적 연구가 아닌 회고조(retrospective)의 연구이다. 즉 장기종단적 연구가 실직을 한 후의 실직자의 심리적 문제를 미래적으로 조사한 반면에 회고조의 연구는 실직자의 문제를 동시적으로(concurrently) 조사했거나 과거회상적으로 그들의 과거문제를 조사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 예컨대 Sainsburg(1956)

는 자살자의 37.7%가 과거에 실직경험과 사업직정을 했다는 사실을 과거회고조로 조사했는데 이런 식의 연구는 그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유형의 연구는 제외시켰다.

실직과 가족관계 연구

앞에 제시한 두 종류의 연구 즉 거시적 연구와 개인적(또는 미시적 연구) 연구는 주로 실직이 실직 당사자에게 주는 효과를 살폈다(일부 연구는 실직이 배우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폈지만 그것은 극소수였다). 그런데 실직은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다. 미국의 1930년대 대공황기에 우연히 실시된 두 종류의 아동발달연구는 아버지의 실직이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부수적으로 살필 수 있었다(Elder & Caspi, 1988). 첫번째 연구는 Oakland 지방의 주민을 대상을 했기 때문에 Oakland연구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이 연구는 1920 - 1921년 사이에 출생한 청소년들이 그 연구대상으로서 10년간에 걸친 장기종단적 연구이었다. 이들은 아동기 때 풍요한 생활을 경험했던 집단이다. 두 번째 연구는 Berkeley Guidance 연구로서 이 역시 미국 캘리포니아의 Berkeley지방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그러한 명칭을 가졌다. Berkeley 연구의 대상자는 1928 - 1929년에 출생한 학령기전의 아동들로서 이들은 아동기 때부터 경제적 곤란을 겪은 집단이다.

Elder와 Caspi(1988)는 위에 언급한 두가지 연구를 최근에 재분석하여 실직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주요한 연구결과를 간추리면 Oakland 조사대상자 보다는 Berkeley의 조사대상자가 사회화과정에서 나쁜 효과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기때 대공황을 경험한 사람은 포부수준이 낮고 자기패배적 행동경향성이 있으며 개인적 사회적 부정적절성이 높았다. 반면 Oakland의 조사대

상자들은 부모를 대신해 직업전선에 뛰어들었으며 위축감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부모의 실직은 학령전 아동들에게 보다 더 심각한 타격을 줌을 발견했다.

경제적인 곤란은 두 연구에서 부부간의 불화와 부모 - 자녀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때 실직가장의 성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하기 전에 안정적 성격을 가졌던 사람은 부부관계나 자녀관계에서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직하기 전부터 불안정한 성격을 가졌던 가장은 실직한 후에 자녀에게 더 엄격하고 부부간의 긴장도를 높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제적인 곤란이 실직한 가장의 불안정한 성격과 맞물릴 때 부부간의 관계는 물론 부모 - 자녀간의 관계가 크게 악화되는 결과를 두 연구가 증명하고 있다.

실직의 심리적 함의와 매개변인

지금까지 실직의 심리적 효과를 조사한 여러 종류의 연구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들 연구가 실직의 심리적 문제를 모두 포괄하였는가를 따져 볼 때 미흡한 느낌을 갖는다. 실직의 심리적 효과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직업 또는 일의 의미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Fagn과 Little(1984)은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일의 의미 또는 중요성을 다음과 같은 일곱가지로 요약했다.

- ① 정체감의 제공: 개인이 하는 일 그 자체가 그의 신분, 계층, 권력, 확립된 서열, 그리고 집단을 나타낸다. 사람들은 직업에서 안전감, 인정감, 그리고 소속감을 획득한다.
- ② 가족이외의 인간관계 제공: 직장은 가족관계 이외의 관계를 형성해 주며 인간관계의 범위를 확장시켜 준다.
- ③ 의무적인 활동의 제공: 직장은 규칙적이고

목적이 있는 활동의 기본 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의무는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스트레스를 주지만 반대로 이러한 의무가 박탈당하면 우리는 심한 고통을 겪는다.

- ④ 기술과 창의력 개발기회를 제공: 직장에서는 우리는 지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능력을 개발시킬 기회를 갖는다.
- ⑤ 시간을 조직하게 함: 직장은 작업시간, 휴식 시간 등을 조직하여 우리가 하루를 열심히 일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 ⑥ 목적의식의 제공: 직장은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를 제공하며 무력감, 자기도피, 그리고 목적상실을 없애준다.
- ⑦ 수입과 통제의 제공: 직장에서는 우리는 돈을 벌어서 자립할 수 있고 여가와 미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보면 직업은 단순한 생계의 수단이 아닌 우리 삶의 의미, 정체감, 시간의 조직, 자기 개발 등의 여러 가지 수단을 제공한다. 따라서 실직은 비단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뿐 아니라 경제적 여유가 있는 모든 실직자에게 고통을 주는 심리적·정신적 장애를 유발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실직 그 자체가 주는 직접적인 영향(예컨대 심리적, 정신적 장애)을 살펴보고 여러 가지 매개변인 예컨대 자기 효능감의 상실, 무력감, 자존심의 결여 등과 같은 심리적 변인을 무시한 감이 있다. 어떤 매개변인이 실직에 개재할까? 우리는 위에 언급한 Fagn과 Little의 직업의 순기능이 실직으로 인해 실직자가 갖는 역기능적 매개변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이 바로 Jahoda의 결핍모델이다.(Jahoda, 1981) 그러나 우리는 앞의 미시적 연구결과에서 실직의 효과는 개인차가 있음을 알고 있다.(Liem과 Liem 1988) 즉 실직자는 그가 하던 일의 내용, 그 일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서 실직의 영향이 달

랐다. 따라서 Jahoda의 직업상실이 가져다주는 모형은 개인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짐을 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되어야 한다. 또 실직자는 실업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가지 경제적, 심리적 자원을 구비하고 있는가에 따라 실직의 후유증이 다를 것이다. 예컨대, 저축을 충분히 해두었고, 아내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위로와 정서적 지원을 받을 때, 그는 이러한 자원이 부족한 사람에 비해 실직으로 인한 효과가 크게 적을 수 있다. 매개변인과 관련된 두번째 요소는 실직에 대처하는 개인의 성격, 심리적 능력이다. 예컨대, 외향성, 낙관론 그리고 지구력은 실직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의 실직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직업상실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실업의 여러가지 역기능을 심리적 매개변인으로 간주하되, 이것과 관련된 개인차, 개인의 대처능력의 차 등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앞의 연구 결과를 조감하면서 우리는 실직자가 많은 심리적·정신적 장애를 갖게 됨을 보아왔다. 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어떤 식의 정신치료·심리치료가 마련되어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실직의 심리적 매개변인을 더 규명하는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대 책

한국은 건국 이래 초유의 대량실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자료가 부족하다. 필자는 최근 심리학 자원 봉사대를 조직하고 그 일환으로 핫라인을 설치하여 전화상담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24건의 전화상담을 했는바 몇가지 중요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그 첫째는 실직자의 90% 이상이 불면증을 호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실직이 극도의 불안과 우울증을 수반하는 충격적 경험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또 이들 상담자의 대부분의 전직이 대졸 사무직이 아닌 고졸 기능직이라

는 사실이다. 짐작하건대 대졸 실직자들은 자존심이 강해서 자기의 문제를 남에게 상의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우리도 인력은행 그리고 쉼터와 같이, 같은 부류의 실직자가 많이 운집한 곳에 Shore(1984)가 제안한 것 같은 동료카운셀링센터와 같은 것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앞에서 설명한 거시적 연구 결과는 실직이 자살과 정신과 입원으로 이어진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고하고 있으며 아울러 미시적(또는 개인적)연구 결과들 역시 실직이 심리적 그리고 정신과적 장애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잘 통제된 유사실험 방법으로 검증되었다. 한국에서 실직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는지 아무도 정확히 추정할 수 없으나 최근 추측에 따르면 400만명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국민의 적지 않은 인구가 정신적 공황을 겪게 된다. 정부, 학계, 병원, 기타 사회조직은 실업자와 실업가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Bradburn, N. M. (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Aldine.
- Brenner, M. H. (1973). *Mental illness and the econom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Brenner, M. H. (1984). *Estimating effects of economic change on national health and social well-being*(Study prepared for the Joint Economic Committee of Congress). Washington, D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Cobb, S., & Kasl, S. V. (1977). *Termination: The consequences of job loss*(Report No. 76-1261). Cincinnati, OH: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Behavioral and Motivational Factors Research.
- Cohn, R. M. (1978). The effect of employment status change on self attitudes. *Social Psychology*, 38, 300-314.
- Dooley, D., & Catalano, R. (1980). Economic change as a cause of behavioral disorder. *Psychological Bulletin*, 87, 450-468.
- Dooley, D., & Catalano, R. (1988). Recent research on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unemployment. *Journal of Social Issue*, 44, 1-12.
- Duncan, G. J., & Morgan, J. N. (1975). *Five thousand American families: Patterns in economic progress: Vol.3. Analysis of the first six years of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Ann Arbor, MI: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 Elder, G. H., & Caspi, A. (1988). Economic Stress in Lives: Developmental perspectives. *Journal of Social Issues*, 44, 25-46.
- Faig, L., & Little, M. (1984). *The forsaken families*. Harmonds-Worth: Penguin.
- Hovland, C. I., & Sears, R. R. (1940). Minor studies in aggression: VI. Correlation of lynchings with economic indices. *Journal of Psychology*, 9, 301-310.
- Iversen, L., & Sabroe, S. (1988).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unemployed and employed people after a company closedown: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Social Issues*, 44, 141-152.
- Johada, M. (1981). Work, employment, and unemployment: Values, theories, and approaches in Social research. *American Psychologist*, 36, 184-191
- Kessler, R. C., Turner, J. B., & House, J. S. (1988). Effects of unemployment on health

- in a community survey: main, modifying, and mediating effects. *Journal of Social Issues*, 44, 69-85.
- Leim, R., & Leim, J. H. (1988). Psychological effects of unemployment on workers and their families, *Journal of Social Issues*, 44, 87-105.
- Liker, J. K., & Elder, Jr. G. H. (1983). Economic Hardship and marital relations in the 1930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343-359.
- Parnes, H. S., & King, R. (1977). Middle-aged job losers. *Industrial Gerontology*, 4, 77-95.
- Pierce, A. (1967). The economic cycle and the social suicide rat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2, 457-462.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1, Whole No. 609).
- Sainsbury, P. (1956). *Suicide in London: An ecological study*. New York: Basic Books.
- Schore, L. (1984). The Fremont experience: A counseling program for dislocated workers,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13, 154-167.
- Theorell, T., Lind, E., & Floderus, B. The relationship of disturbing life-change and emotions to the early development of myocardial infarctions and other serious illness. *International Journals of Epidemiology*, 1975, 4, 281-293

Psychological Impact of Economic Depression

Hoon-Koo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present article reviewed the studies of the effect of economic disasters on psychological disorders, performed in western societies. The studies of macro approaches demonstrated the rises of sociopathological incidences such as suicide, aggression, admission to mental hospitals. Psychological studies on economic disaster revealed the psychological variables intervened between economic depression and sociopathology. It was found that psychological depression, frustration, and powerlessness are the psychological problems experienced by the most unemployed.